

非自動的 交替의 共時的 記述

金星奎*

I. 序 論

1.1. 우리는 文章單位이든 그것보다 작은 單位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言語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만약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자료의 단순한 나열로만 言語生活을 營爲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言語規則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일부분은 기억 속의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그 자료들을 이른바 規則에 의해 엮기 때문이다.

언어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 이 두 부분 즉 단순한 記憶의 再生과 規則의 適用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의 경계를 捕捉하는 것은 여간 힘든 作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 현상을 語彙部 안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한 規則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1.2. 本稿에서 다루는 非自動的 交替는 語彙部와 音韻部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루어져 온 문제들이다.

어떤 음운론적인 환경에서 音素의 交替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언어의 音聲 構造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交替를 音韻論的으로 條件된 自動的 交替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音韻論的으로 條件된 非自動的 交替라고 불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Hockett, 1958). 즉 어떤 形態素의 音素 交替를 설명하려 할 때 非音

* 박사과정

韻論의인 條件까지를 필요로 하였던 例들이 바로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비자동적 교체의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현상에는 ‘덥다, 더워, 더우니’에 보이는 語幹末音素의 交替와 ‘알 : 다, 알아’ 등에 보이는 語幹 音長의 交替 그리고 ‘먹으니, 가니’ 등에 나타나는 接尾辭의 交替가 있다. 또한 ‘잡다, 가다’에 보이는 接尾辭의 硬音化 現象 역시 언급될 것이다.

‘덥다’와 ‘더우니’에 나타나는 語幹의 異形態를 傳統文法에서는 ‘덥다’의 ‘덥-’을 기본형으로 보아 정칙용언인 ‘잡다, 잡아’의 ‘잡-’과는 다른 변칙용언으로 다루었고 生成音韻論이 도입되면서 추상적인 기저형의 설정으로 규칙의 영역에서 ‘說明’하려 하였다.¹⁾ 최근에는 自然音韻論(Natural Phonology)에 힘입어 이러한 어간 이형태의 선택이 語彙部(lexicon)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게 되었다.²⁾ 本稿 역시 이러한 세번째 관점과 입장을 같이한다. ‘덥다’의 어간에서 ‘더우니’의 어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더우니’의 어간에서 ‘덥다’의 어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추상적인 어간형에서 이 둘을 끌어내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단지 ‘덥다’와 ‘더우니’의 어간형을 따로 그리고 동시에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論議의 共時論은 記述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語幹 異形態가 만들어진 원인을 共時論에서는 說明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變則用言

2.1. 종래에 ㅂ변칙, ㅅ변칙, ㄷ변칙 등으로 다루어져 오던 用言의 交替形은 그 용어에 있어서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어미 ‘-다’와 결합하는 語幹의 形態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 1) 추상적인 생성음운론에는 金鎭宇(1968, 1971, 1973), 김차균(1971), 이병진(1976) 등이 속하고 구체적인 생성음운론에는 金榮起(1973, 1975), 金手坤(1977), 문경환(1981) 등이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崔明玉(1985) 참조.
- 2) 崔明玉(1985), 한영균(1985) 등이 대표적이다. 姜昶錫(1982, 1985) 역시 표면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부류에 들 것이다.

덥다	더우니
잡다	잡으니
씩우다	씩우니
잇다	이으니
씻다	씻으니
모으다	모으니
물다	물으니
달다	달으니
따르다	따르니

위의 용례들은 辭典에 ‘덥다, 잇다, 물다’ 등이 標題語로 실려 있다는 점 이외에는 모음 앞에 나타나는 형태가 기본형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우기 ‘더우니, 이으니, 물으니’의 어간 형태를 기본형으로 잡으면, ‘씩우니, 모으니, 따르니’와 ‘씩우다, 모으다, 따르다’의 비교에서 각각 ‘우번칙, 으번칙, 르번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用言들은 ‘덥다, 잇다, 물다’와 같이 자음 앞에서 語幹의 變化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러한 교체형을 번칙 또는 불규칙으로 이름 붙였다는 데서 발견된다. 崔明玉(1985)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교체형은 ‘정칙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잡으니, 잡다’類의 語幹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³⁾ ‘덥다, 더우니’類의 語幹이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교체를 보일 때 前者가 規則이고 後者가 不規則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後者도 그 나름의 規則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變則(또는 不規則)用言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用言交替現象에 붙일 적절한 이름을 찾기가 힘든 탓도 있지만 명칭의 변경이 내용 자체를 변질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2. 번칙용언은 최근에 崔明玉(1985, 1988), 한영균(1985) 등에서 단일한 기저형이 아닌 語彙部(lexicon)에 포함되어야 할 어간의 교체형

3) 물론 /잡는/도 나타나지만 이것은 自動的 交替의 영역에 드는 것이므로 本稿에서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으로 해석되었다.⁴⁾ 필자도 이러한 견해를 전적으로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밝히기로 한다.

崔明玉(1985)에서는 변칙용언으로 불리는 부류에 대해 다음의 (1)과 같이 기저형을 표시하고 非生成的(non-generative)인 규칙 (2)에 의해 교체형이 選擇된다고 하였다.

- (1) ㅂ-변칙용언 : /X(p-u)-/
 ㅅ-변칙용언 : /X(t-ϕ)-/ 또는 /X?-/
 ㄷ-변칙용언 : X{t-l}-/
- (2) ㅂ-변칙 : $\left\{ \begin{array}{l} p \\ u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p / ___ \\ u \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text{Vst C}$
 ㅅ-변칙 : $\left\{ \begin{array}{l} t \\ \phi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 / ___ \\ \phi \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text{Vst C}$
 ㄷ-변칙 : $\left\{ \begin{array}{l} t \\ l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 / ___ \\ l \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text{Vst C}$

여기서 ㅅ-변칙과 ㄷ-변칙 용언이 각각 'top, tɔl'의 교체를 語幹末에서 보이는 것으로 記述되었지만 다음의 例를 통해 알 수 있듯이 't'가 순수한 'ϕ'와 'l'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있다 이으니
 기다 기니
 물다 물으니
 물다 무니⁵⁾

ㅅ-변칙과 ㄷ-변칙의 語幹末에서 각각 'top, tɔl'의 교체를 보인다면 '이으니, 물으니'가 아닌 '*이니, *무니'가 실현되어야 한다.⁶⁾ 그러

- 4) 變則用言을 단일한 기저형과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생성음운론에 대한 비판은 崔明玉(1985) 참조.
 5) 口語에서는 수의적으로 '물으니'도 나타나지만 여기서 함께 다룬 문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짧-'의 의문형이 '짧으니'로도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다는 語幹 또는 接尾辭를 단일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음이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李秉根(1981) 참조.
 6) 수의적으로 '이:니'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마음→말:'과 함께 다루어야

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活用形은 항상 ‘이으니(또는 ‘이 : 니’), 물으니’이다. 이것은 결국 ‘이으니, 물으니’의 어간이 순수한 ‘이-, 물-’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덜다, 더우니’와 함께 이러한 용언의 어간은 다음의 (3)이나 (4)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ta:p-(자음 앞)	taw-(모음 앞)
i:t-	iʔ-
mu:t-	mulʔ-

(4) ta:p-(자음 앞)	təu-(모음 앞)
i:t-	ii-
mu:t-	muli-

이 두 방안 중 (3)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4)를 택할 것인가는 접미사와의 결합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3)을 택하든 (4)를 택하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ㅂ-변칙에 대해서는 /təu-/를 택하면서 ㅅ-변칙이나 ㄷ-변칙에 대해서는 /iʔ-/과 /mulʔ-/을 택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해석 방식이라고 하겠다. 일단 (3)의 /taw-/를 택했으면 계속해서 (3)의 /iʔ-/과 /mulʔ-/을 택하고 (4)의 /təu-/를 택했으면 /ii-/와 /muli-/를 택하는 것이 음운론적으로 기제를 같이하는 현상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하겠다.”

변칙용언의 選擇規則은 (3)을 택하면 (3')로 (4)를 택하면 (4')로 記述될 수 있을 것이다.⁸⁾

$$(3') \text{ ㅂ-변칙} : \begin{cases} p \\ w \end{cases} \rightarrow \begin{cases} p/______ \\ w \text{ elsewhere} \end{cases} \text{Vst C}$$

할 성질의 것이다. 일단 ‘이으니’가 상정된 후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안상철(1985)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어휘부 바깥의 층위(post lexical stratum)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7) 배주채(1989)에서는 ㄷ-변칙에서 (3)의 방식을 택하면 용언어간말자음군으로 /lʔ/이 생기게 되므로 (4)의 /muli-/를 택하고 ㅅ-변칙은 어말에 음소 /ʔ/을 가진 소위 정칙용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필자는 음소 /ʔ/을 일단 설정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경우의 記述에 있어서 /ʔ/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8) 語幹의 短母音化現象은 위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論外的 것으로 하였다.

$$\text{ㅅ-변칙} : \left\{ \begin{array}{l} \{t\} \rightarrow \{t/___\} \text{Vst C} \\ \{?\} \rightarrow \{?\text{ elsewhere} \end{array} \right\}^9)$$

$$\text{ㄷ-변칙} : \left\{ \begin{array}{l} \{t\} \rightarrow \{t/___\} \text{Vst C} \\ \{l?\} \rightarrow \{l?\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4') \text{ㅂ-변칙} : \left\{ \begin{array}{l} \{p\} \rightarrow \{p/___\} \text{Vst C} \\ \{u\} \rightarrow \{u\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text{ㅅ-변칙} : \left\{ \begin{array}{l} \{t\} \rightarrow \{t/___\} \text{Vst C} \\ \{i\} \rightarrow \{i\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text{ㄷ-변칙} : \left\{ \begin{array}{l} \{t\} \rightarrow \{t/___\} \text{Vst C} \\ \{li\} \rightarrow \{li\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Ⅲ. ‘으’前置性 接尾辭

3.1. /-으니ㄷ-니/類에 보이는 交替가 문제되는 것은 ‘-니’ 자체로도 충분히 意味機能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으니’의 ‘으’는 순수하게 音韻論的인 機能만을 담당한다고 하겠지만 의문형의 ‘-니’와 비교할 때 語彙的인 制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接尾辭들의 交替는 그 現象을 自動的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非自動的인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自動的 交替로 볼 때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니’ 등을 기저형으로 잡고 ‘으’를 매개모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金完鏞(1972) 등에서의 지적과 같이 ‘먹고, 먹지’ 또는 의문형의 ‘먹니’에는 ‘으’가 출현하지 않는 원인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춘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의 (5)와 같이 ‘으탈락규칙’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5) 으 → ϕ / [+vocalic] - _____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첫째 제약으로는 경체를 사이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름’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형태

9) ㅅ-변칙을 語幹末에 음소 /ʔ/을 가진 正칙용언으로 보면 ㄷ-변칙에 대해서도 /ʔ/와 /lʔ/이 교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 내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5)의 규칙이기 때문이다.¹⁰⁾ 또한 (6)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活用이라는 形態論的인 制約을 갖고 있으면서도 活用이 아닌 曲用的 ‘으로’와 함께 曲用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으탈락’이 일어난다.

(6) 먹+으러→먹으러	하+으러→하러	알+으러→알러
집+은→집은	나+은→난 ¹¹⁾	불+은→불은
손+으로→손으로	차+으로→차로	불+으로→불로

결국 (5)의 규칙은 경계를 필요로 하며 ‘ㄱ’ 다음에서 ‘으’가 탈락하는 경우는 活用과, 曲用的 ‘으로’에만 한정시켜야 한다. 이러한 規則의 偏在性은 모음과 ‘ㄱ’ 뒤에 ‘으’가 나타나지 않는 現象들을 하나로 묶어 音韻論的으로 條件된 自動的 交替로 다루려는 노력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3.2. ‘—前置性 接尾辭’를 非自動的 交替로 보면 이것은 語彙部 안에서 交替되는 現象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活用的 ‘으니으니, 으며으며’ 등과 曲用的 ‘으로으로’를 ‘語彙類 가’라고 하고 曲用的 ‘은은(는), 을은(를)’ 등을 ‘語彙類 나’라고 하면 각각 다음의 (7), (8)과 같이 語彙部に 실린다.

(7) 語彙類 가 : /—[i-ϕ]X/

$$\left\{ \begin{array}{l} i \\ \phi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i/[+vocalic] \text{ —} \\ \phi \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8) 語彙類 나 : /—[i-ϕ]X/

$$\left\{ \begin{array}{l} i \\ \phi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i/C \text{ —} \\ \phi \text{ elsewhere} \end{array} \right\}$$

(7)과 (8)의 각 어휘류와 어간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0) 필자의 술어로는 이것을 ‘語彙素’內部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줄음’과 같은 파생어 역시 규칙 (5)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1987) 참조.

11) 여기서 ‘난~나는’의 교체는 문체적인 차이로 보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7') 알-(知) → -은([-vocalic] 뒤)
 ↘ -ㄴ([+vocalic] 뒤)

음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알-’은 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 그러나 接尾辭 ‘은, ㄴ’의 입장은 다르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결합인 ‘알+은’과 ‘알+ㄴ’ 중 접미사의 음운론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알+ㄴ’ 밖에 없다. 여기서 ‘ㄴ’이 ‘ㄴ’ 앞에서 탈락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형태는 ‘안’이 된다.

(8') 불(火) → -은(자음뒤)
 ↘ -ㄴ(모음뒤)

‘語彙類 나’가 관련된 때는 접미사의 選擇條件에 의해 (8')와 같이 ‘불+은’의 결합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합 과정을 보이면 다음의 (6')와 같다.

(6')	먹+으러→먹으러	하+러→하러	알+러→알러
	집+은→집은	나+ㄴ→난	불+은→불은
	손+으러→손으러	차+로→차로	불+로→불로

3.3. ‘으-前置性 接尾辭’에 대해 自動的 交替와 非自動的 交替의 絶충안도 있을 수 있다. ‘쓰+어→써’의 ‘으탈락’과 모음 뒤에서의 ‘으탈락’을 묶어 모음의 앞과 뒤에서 ‘으’가 탈락하는 규칙을 하나 설정하고 ‘ㄴ’ 뒤에서의 으-前置性 接尾辭의 交替는 非自動的 交替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합 양상은 (6'')와 같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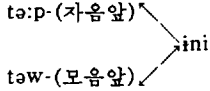
(6'')	먹+으러→먹으러	하+으러→하러	알+러→알러
	집+은→집은	나+은→난	불+은→불은
	손+으러→손으러	차+으러→차로	불+로→불로

3.4. 우리는 앞에서 不規則用言의 語幹 交替에 대한 結論을 留保하였다. 이 문제는 접미사와의 결합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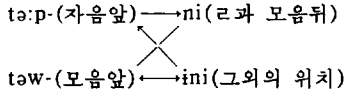
不規則用言의 語幹을 기술하는 방법은 (3)의 /tə:p-ɔtaw-/와 (4)의 /tə:p-ɔtau-/ 두가지이고 接尾辭를 기술하는 방법은 (6), (6'), (6'') 세

가지이므로 여섯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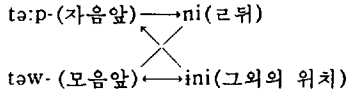
I 안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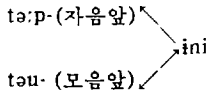
II 안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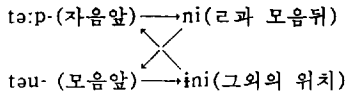
III 안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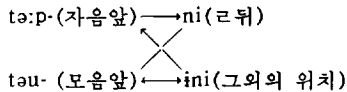
IV 안 : (4)-(6)



V 안 : (4)-(6')



VI 안 : (4)-(6'')



위의 안 중 다섯번째의 것은 語幹과 接尾辭의 音韻論的인 條件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합 유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외된다. '더우니'가 만들어지는 과정만 놓고 볼 때는 I, II, III의 안이 하나로 묶여 (9)와 같이 표시될 수 있고 IV, VI의 안이 하나로 묶여 (10)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12) 사변치, 二변치도 결과는 같으므로 二변치만 예로 든다.

(9) $taw + ini \rightarrow t\ddot{a}uni$ (10) $t\ddot{a}u + ini \rightarrow t\ddot{a}uni$

(9)의 방식 즉 不規則 用言에 대해 (3)의 방식을 택할 경우 몇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한영균(1985)에서 지적되었듯이 기저에 활음으로 끝나는 /taw-/를 설정할 경우 현대국어에 하향성 이중모음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w+i→u'라는 음운과정을 설명해야 하며(崔明玉, 1985) ㄷ변칙과 ㅅ변칙의 경우 새로운 음소 /ʔ/을 설정해야 한다.¹³⁾

그런데 /taw-/와 같은 하향성 이중모음의 구성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국어의 음절구조계약이나 형태소구조계약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표면에 나타나는 음절구조계약이 기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어의 표면음절구조에는 세자음의 연속이나 語末子音群을 피하는 제약이 있는데 그것이 기저에서도 적용되어 (11)과 같은 /kaps/와 /to/의 결합을 막지는 못한다.

(11) <기저> <표면>

값+도→갑도

이것은 하향성 이중모음이 표면에 없다고 하여 기저에서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더워'의 '워'와 같이 /taw-/의 /w/는 표면에서 상향성 이중모음의 성립에 기여한다. 그리고 'w+i→u'라는 음운과정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10)의 방식 즉 (4)와 같은 기저형으로 볼 경우는 위와 같이 (9)의 방식으로 기술할 때 생겼던 문제점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음소 /ʔ/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그에 따라 음운규칙 (12)도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12) $\text{?} \rightarrow \phi / [+voiced] ____ [+voiced]$ ¹⁴⁾

이러한 (9)와 (10)의 차이는 語幹의 입장에서 볼 때 나타나는 것이고

13) 기저음소 /ʔ/은 金完鎭(1972), 李翊燮(1972), 崔明玉(1978) 등에 설정하고 있다.

14) 배주채(1989)에서는 환경이 모음사이로 한정되었지만 여기서는 崔明玉(1982)를 따른다. 뒤에 보일 /갑따/의 경우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接尾辭의 입장에서는 I안과 IV안이 3.1.에서의 지적과 같이 形態論的, 語彙論的 制約이 있음을 다시 밝히 둔다.

IV. 短母音化

4.1. 國語의 用言 語幹 中에는 子音으로 시작하는 接尾辭 앞에서는 長母音으로, 母音으로 시작하는 接尾辭 앞에서는 短母音으로 실현되는 一音節 語幹들이 있다.¹⁵⁾

- (13) 갈 : 다 잘아
 곱 : 다 고와
 곁 : 다 곁어
 잇 : 다 이어
 꼬 : 다 꼬아
 꾸 : 다 꾸어
 비 : 다 비어

이러한 現象은 體言의 범주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수많은 例外的 用言들이 存在한다.

- (14) 굵 : 다 굵 : 어 많 : 다 많 : 아
 없 : 다 없 : 어 작 : 다 작 : 아
 뽕 : 다 뽕 : 어 적 : 다 적 : 어
 얼 : 다 얼 : 어 언 : 다 언 : 어
 쉽 : 다 쉬 : 워 꿀 : 다 꿀 : 어
 벌 : 다 벌 : 어 줄 : 다 줄 : 아
 셀 : 다 셀 :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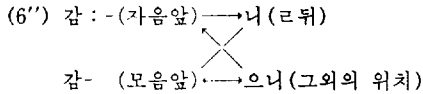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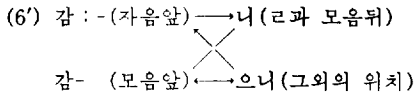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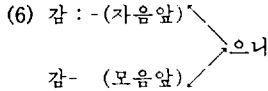
短母音化라는 現象이 用言에만 한정되어 있고 (14)와 같이 많은 예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自動的 交替로 보기 힘들다. 이러한 現象 역시 語彙部 안에서 이루어지는 非自動的 交替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13)의 경우와 같이 音長의 交替를 보이는 부류를 모아 ‘語彙類 다’라고 하면 그 選擇規則은 다음의 (15)와 같이 될 것이다.

15) 李秉根(1975, 1978), 줄고(1987) 참조.

$$(15) \text{ 語彙類 다 : / \# \# (c) \left[\begin{array}{c} V \\ \left[\pm \text{long} \right] \end{array} \right] (c) (c)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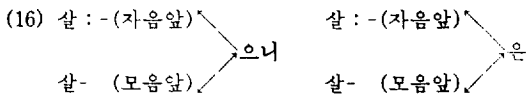
$$\left[\begin{array}{c} V \\ \left[\pm \text{long} \righ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long} / \text{---} C \\ -\text{long elsewhere} \end{array} \right\}$$

‘감 : 다’를 예로 들어 (6), (6’), (6’’)와의 결합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6’), (6’’) 모두 語幹과 接尾辭의 結合에서는 ‘감+으니’만 허락한다. 즉 어간이 短母音인 ‘감으니’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경우 (6), (6’), (6’’)의 장단점을 포착할 수 없다.

4.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살 : 다’의 관형형 ‘산 :’이다. 長母音을 갖고 있는 ‘살 :’이 子音 앞에서 選擇되고 短母音을 갖고 있는 ‘살-’이 母音 앞에서 選擇될 때 (5)의 ‘으탈락 규칙’을 인정한다면 (6)의 유형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결합 양상을 갖는다.



즉 ‘살+으니 \rightarrow 살니 \rightarrow 사니’와 같이 ‘*사니’ 또는 ‘*산’의 잘못된 어형을 만들어 내게 된다.

물론 (5)의 ‘으탈락규칙’의 수용 영역 안에서 短母音化規則도 인정을 하면서 ‘사 : 니’와 ‘산 :’을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7)	살 : +은	살 : +은
으탈락 :	살 : ㄴ	단모음화 : 살 은
단모음화 :	_____	으탈락 : 살 ㄴ
르탈락 :	산 :	르탈락 : 산
	[산:]	[*산]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 '*산'이 아닌 '산:'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으탈락규칙' 후에 '단모음화규칙'이 적용되는 外在的인 規則順位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칙순서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만든 특수한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¹⁶⁾

결국 (5)의 '으탈락규칙'을 인정하면 短母音化規則을 설정할 경우 形態論的인 制約과 語彙論的인 制約 그리고 外在的인 規則順位를 용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母音의 長短交替를 非自動的인 것으로 보면 더욱 문제가 생긴다. 절대로 '사:니, 산:' 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니'와 '산:'의 도출은 (6'), (6'')의 틀 안에서는 쉽게 이루어진다.

(18)	살 : -(자음앞)	←	니 (르과 모음뒤)	
		↘		
	살-	(모음앞)	→	으니(그외의 위치)
(19)	살 : -(자음앞)	←	니 (르뒤)	
		↘		
	살-	(모음앞)	→	으니(그외의 위치)

(18)은 (6')의 틀이고 (19)는 (6'')의 틀인데 모두 '살: +니 → 사:니'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어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는 外在的인 規則順位도 필요 없고 形態論的인 制約 등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單語마다 語彙部에 두개의 소리값을 실어야 하므로 語彙論的인 制約조차 없다고는 하기 힘들 것이다.

4.3.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ㅍ:다'의 관형형 'ㅍ:.'이다. (5)의

16) 李秉根(1978)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규칙순을 채택하고 있다.

‘으탈락규칙’을 설정할 경우는 ‘사:니, 산:’ 등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므로 (6)의 틀에 대해서는 論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의 틀과 (6'')의 틀만 살펴 보기로 한다.

(20) ㅍ : -(자음앞) → ㄴ (ㄷ과 모음뒤)
 ㅍ- (모음앞) → 으니(그외의 위치)

이것은 (6')의 틀인데 ‘ㅍ : + ㄴ → ㅍㄴ:’과 같이 적절한 어형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6'')의 틀은 문제가 다르다.

(21) ㅍ : -(자음앞) → ㄴ (ㄹ뒤)
 ㅍ- (모음앞) → 으니(그외의 위치)

(21)에서 語幹과 接尾辭의 音韻論的 選擇條件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ㅍ+으니’의 結合形式이다. 이 틀은 (5)의 ‘으탈락규칙’과는 달리 모음 앞뒤에서의 ‘으탈락규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ㅍ+으니 → *ㅍ니’와 같이 자음 앞에서 短母音이 나타나 自體的으로 論理가 무너진다.

(6'')이 틀에서 短母音化規則을 인정할 경우 (6)의 틀과 마찬가지로 ‘短母音化規則’에 ‘으탈락’이 앞선다는 ‘規則順이 外在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¹⁷⁾

4.4. (15)의 ‘語彙類 다’가 (13)과 같이 音長의 交替를 보이는 現象에 대한 記述은 接尾辭의 立場에서 볼 때 ‘ㄷ’과 모음 뒤에서는 ‘으’가 없는 형태가 結合되고 그외의 위치에서는 ‘으’를 포함한 형태가 結合된다고 보는 (6')와 (7)의 방안이 가장 문제를 적게 갖고 있다.¹⁸⁾

17) 短母音化가 ‘으탈락’에 앞선다고 할 경우 ‘ㅍ으니 → ㅍ:니’가 ‘마음 → 밤:’과 같이 일어나리라 가상할 수도 있지만 *‘ㅍ으니’라는 어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당성이 없다.

18) 물론 體言에 대해서는 (8)과 같이 기술해야 한다.

V. 附隨的인 問題

5.1. 現代國語에는 用言에 있어서 語幹이 ‘ㄴ’이나 ‘ㄹ’으로 끝나면 接尾辭의 첫자음이 硬音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있다.

- (22) 안(抱)+다→안따
검(黑)+다→검따

이런 現象은 體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규칙화를 시킬 수 있다.

(23) 硬音化規則

$$[+obst] \rightarrow [+tense] / \left[\begin{array}{l} -obst \\ -cont \end{array} \right] \text{verb base} + \text{---X} \langle \text{suff.} \rangle$$

(23)의 규칙은 生産力이 있는 形態素나 形態素群에만 해당되므로 ‘감기다’ 등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¹⁹⁾ 그러나 境界와 形態論的인 制約을 필요로 하는 規則이다.

5.2. 이 문제도 (3)과 같이 음소 /ʔ/을 설정하면 달리 記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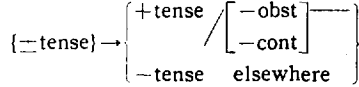
- (24) ka:mʔ + ta → ka:mt'a
kamʔ + a → kama²⁰⁾

그러나 (4)와 같이 音素 /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形態論的인 制約을 갖는 規則記述도 피하고 音素 /ʔ/도 거부한다면 /-다 ㄴ-따/와 같이 非自動的으로 交替된다고 보아야 한다. ‘ㄴ, ㄹ’ 아래에서 硬音화를 겪는 모든 接尾辭를 ‘語彙類 라’로 보면 (25)와 같은 選擇規則을 設定해야 한다.

- (25) 語彙類 라: $/ \left[\begin{array}{l} +obst \\ \{ \pm tense \} \end{array} \right] X /$

19) 줄고(198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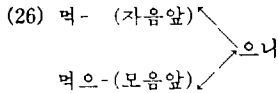
20) 이 경우 모음 앞에서는 /kam/으로만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短母音으로 실현되는 ‘신타’와 같은 경우도 /sinʔ/ < sin/의 교체로 기술해야 하므로 피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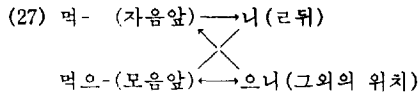
이러한 방안은 用言에 나타나는 수많은 接尾辭들이 모두 /-다∞-따/, /-지∞-찌/, /-고∞-꼬/ 등과 같이 두가지 소리값으로 語彙部에 실려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다. 이 경우 冠형형 ‘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서는 音素 /ʔ/을 설정할 때의 /lʔ/ 대신 /lt/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홀-’의 경우 語幹末에 子音群 ‘ㄹ’이 있기는 하지만 ‘ㄹ’이라는 語幹末 子音群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5.3. 아직도 남는 문제는 ‘먹으니’에서 ‘먹으-’를 語幹의 한 形態로 볼 가능성이 있다. 즉 子音 앞에서는 ‘먹-’이 選擇되고 ‘먹으-’는 母音 앞에서 選擇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너무나 많은 用言 語幹이 語彙部에 두개의 소리값으로 실리게 되고 우리의 支配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점 외에는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것 역시 接尾辭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6), (6'), (6'')의 틀 안에서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6)의 틀을 따라 (5)의 ‘으탈락’을 인정하면 ‘먹으--으니→먹으니’와 같이 기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6'')의 틀을 따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도 ‘먹으-’와 ‘으니’의 결합은 音韻論的인 選擇條件이 만족되므로 모음의 앞과 뒤에서 ‘으’가 탈락한다는 규칙에 의해 ‘먹으+으니→먹으니’와 같이 충분히 기술된다.

그러나 (6')와 같이 ‘니’는 ‘ㄹ’과 모음 뒤에서 쓰이고 ‘으니’는 그 외의 위치에서 쓰인다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28) 먹- (자음앞) ↘
 먹으-(모음앞) ↙ 다

(29) 먹- (자음앞) ↘
 먹으-(모음앞) ↙ 어

(30) 먹- (자음앞) → 니 (리과 모음뒤)
 먹으-(모음앞) ↘
 ↙ 으니 (그외의 위치)

(28)의 경우는 ‘먹+다’의 결합에 별 문제가 없다. (29)에 있어서는 ‘쓰+어→써’와 같이 ‘먹+어→먹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에서는 語幹과 接尾辭의 音韻論의인 條件을 모두 만족시키는 結合이 있을 수 없다. 결국 (6), (6')(6'')의 세 방안 중에서 (6')만이 /먹-∞ 먹으-/와 같은 非自動的 交替로 記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Ⅵ. 結 論

6.1. 音韻論的으로 유사한 異形態 A와 A'를 접했을 때 우리는 A 또는 A'가 각각 A' 또는 A로 변형되었다고 이해하거나 새로운 X의 도움을 받아 A와 A'가 모두 이 X에서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A와 A'의 類似性을 自動的인 交替의 領域에서 다루려는 노력이다. 여기에 속하는 자료로는 /값∞갑∞감/과 같이 共時的인 說明이 가능한 것들을 들 수 있다. 共時的으로 說明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共時的으로 音聲的인 動機를 찾을 수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반면 異形態 사이에 音韻的인 類似性이 발견되어도 그것을 說明할 音聲的인 動機가 共時的으로 存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通時的인 變化의 결과로 이루어진 非自動的 交替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非自動的 交替는 共時論에서는 記述의 次元을 넘어설 수 없다.

前者와 같이 音聲學的인 說明이 가능한 것들은 語彙部 밖에서 변형의 규칙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後者와 같이 共時的인 說明力이 없는 것들은 語彙部 안에서 선택의 규칙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비자동적 교체를 변

형의 규칙으로 기술한다면 형태론적인 제약 내지는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선택의 규칙으로 기술한다면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個個의 語彙들이 가지고 있는 規則性이기 때문이다.

6.2. 本稿에서는 이러한 생각에서 몇가지 資料들에 대한 記述方法을 다루었다. 그러나 각 문제에 대한 해석태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短母音化的 規則을 選擇의 規則으로 볼 경우 접미사 ‘니’는 ‘ㄹ’과 모음 뒤에서 선택되고 ‘으니’는 자음 뒤에서 선택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不規則 用言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記述方式은 3.4.의 II안 뿐이다. 그렇다면 (3)과 같이 音素 /ʌ/을 설정해야 하고, 이 音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用言의 ‘ㄴ’이나 ‘ㄹ’의 末子音을 갖는 語幹 뒤에서 일어나는 接尾辭頭子音의 硬音化를 自動的 交替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또한 /ㄷ-∞ㄷ으-/와 같은 記述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모음화를 변형규칙으로 본다면 모든 문제들의 해석이 바뀔 것이다. 어떠한 記述方式을 택할 것인가는 音語를 研究하는 사람의 직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직관이 바로 語彙部와 語彙部 바깥의 境界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다. 경우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다.

6.3. 우리는 종종 共時的으로 說明하기를 원하는 현상과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사이에서 혼동을 한다. 非自動的 交替를 보이는 現象은 그 원인이 現代國語에 內在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때 그 共時論은 記述의 次元을 넘어설 수 없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本稿에서 다룬 形態音素的 交替들이 모두 用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결국 用言의 語幹과 接尾辭들이 모두 非自立的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非自立性이 通時的 言語變化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²¹⁾

21)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불구어간을 예로 들어 活用形들이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다고 본 姜稔錫(1985)의 논의와 活用이라는 범주의 특성이 국어의 문

〈참고문헌〉

- 姜昶錫(1982), 現代國語의 形態素 分析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50.
 _____(1985), 活用과 曲用에서의 形態論과 音韻論, 울산어문논집 2.
 金星奎(1987), 語彙素 設定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77.
 金手坤(1977), 'ㅂ'變則動詞類의 音韻論的 意義, 언어 2-2.
 金榮起(Kim-Renaud, Y.K.) (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語學研究 9-2.
 _____(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Tower Press.
 金完嶺(1971), 國語 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_____(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東亞文化 11.
 金政佑(1984), 國語 音韻論의 境界問題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59.
 金嶺宇(Kim, Chin-W.)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3.
 _____(1971), 所謂 變格用言의 非變格性에 關하여, 韓國言語文學 8-9.
 _____(1973), Regularity of the so-called Irregular Predicates in Korean, in Kisseberth(ed.) Studies in Generative Phonology, Edmonton: Linguistic Research.
 김차균(1971), 변칙용언연구, 한글 147.
 문경관(Moon, K.H.) (1981), Korean P-Irregular Verbs Revisited, Linguistic Analysis 8-4.
 박창원(1986), 음운교체와 제어회화, 語文論集 2.
 배주채(1989, 근간),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國語研究 91.
 안상철(Ahn, S.C.) (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Hanshin Publishing Co.
 이병건(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一志社.
 李秉根(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_____(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_____(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
- 법체제를 바탕으로 재음미되어야 함을 이야기한 한영균(1985), 그리고 환경에 따라 형태소 경계에서 상이한 재구조화가 일어났을 때의 처리 방안을 모색한 박창원(1986)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 李翊燮(1972),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의 考察, 震檀學報 34.
- 崔明玉(1978),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 7.
- _____ (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 s-, t-變則動詞를 중심으로, 國語學 14.
- _____ (1988),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li-, la-, e(ja)-, h-變則動詞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24-1.
-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冠嶽語文研究 10.
- Bruck, A., R. Fox, and M. LaGaly, eds.(1974),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Natural Phonology,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 Hastings, A.J. (1974), Howard's Directional Theory and Unordered Rule Hypothesis, in Bruck(eds.).
- Hooper, J.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New York.
- Koutsoudas, A., G. Sanders, and C. Noll(1974), On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50.
- Saussure, F. de.(1981),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re} éd., Paris et Lausanne, 1916).
- Tiersma, P. (1983), The Na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evidence from breaking in Frisian, Journal of Linguistics 19-1.